

# 하나 됨을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20~26

## 【인도자를 위한 예화】

내가 중보기도 사역을 처음 배운 것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랑의교회에서 영성 훈련 사역을 처음 맡으며 기도 사역을 활성화해 보라는 옥한흠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연구하던 중에 달려간 곳이었습니다. 당시 중보기도학교 강의를 들으며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 사역은 학교처럼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가능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회 내에 기도를 통한 치유와 목양 사역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역에 참석하는 성도 수가 많아짐으로써 교회가 기도에 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사역은 교회를 기도 체질로 만드는데 아주 효율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사랑의교회는 중보기도 사역을 개척 때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쉽 없이 중보기도 사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얻은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는 승리하고 열매 맺습니다. - 이인호, 「기도하면 살아난다」(두란노) 내 삶 속에 중보기도를 통해 얻은 유익한 열매나 승리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배경 이해하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가 담긴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략하고, 구원의 성취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뇌보다는 기쁨과 승리의 언어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가 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도로 인해 믿게 될 미래의 성도의 일치와 연합을 중보하셨습니다. 앞부분(6~19절)의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전하고 거룩하게 해 달라는 기도였다면, 본문의 기도는 그 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모든 세대의 선택된 백성을 포함하는 광대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나아가 광대한 구원의 최종 목적은 모두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24절).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 준 영광을 동일하게 미래의 성도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보여 줍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셨나요? (20절)**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미래의 성도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미래의 성도'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10: 16),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들"(엡 1:4~5), "세상 중에 흩어져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행 18:10) 등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당신을 믿게 될 성도를 향한 포괄적인 중보기도였습니다. 그 위대한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기'(21절)를 중보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들(성자)이 아버지(성부)와 하나를 이룬 연합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이치

입니다. 예수님은 연합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해 주의 복음을 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 적용과 나눔 I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합을 위해 나는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통해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에게 연합과 일치를 암시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각 성도가 거룩한 몸의 한 지체임을 깨닫고 일치와 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지체는 몸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 및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를 섬길 때 교회는 일치와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합과 일치의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엡 4:3).

## 관찰과 묵상 II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들이 무엇을 보길 원하셨나요?(24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믿는 자들도 보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신분(2:11)과 부활 후 승천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17:5). 또한 십자가를 위한 고난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12:23).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다가올 고난을 영광으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롬 8:17)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쟁취와 승리만을 영광으로 여기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자기 부인과 낮아짐으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상호 내주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 적용과 나눔 II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교회에 임한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 영광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지위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던 영광은 자신을 대적들에게 내어주는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는 사랑의 영광이자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겸손의 영광입니다. 더불어 십자가 고난과 수욕을 참으며 인류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인내의 영광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인내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외된 이들에게 떡을 떼어 주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대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주님을 섬기듯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때 예수님이 원했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